서울주보

제2556호
2025년 5월 4일(다해)

부활 제3주일(생명 주일)

베드로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
라파엘로 (Raphael Sanzio, 1483-1520)
1515-1516, 종이에 글루 템페라(수채), 344X534cm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영국 런던

입 당 송 | 시편 66(65),1-2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5,27ㄴ-32.40ㄴ-41

화 답 송 | 시편 30(29),2와 4.5-6.11-12ㄱ과 13ㄴ(◎ 2ㄱ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 묵시 5,11-14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복 음 | 요한 21,1-19<또는 21,1-14>

영성체송 | 요한 21,12-13 참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s://cc.catholic.or.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 tv 297번 | U+ tv 274번

생명의 말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영제 요셉 신부 | WYD 법인·기획 사무국 국장

제게는 감동적인 부활 체험이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을 코앞에 두고 군에 입대했을 때의 일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한 번도 부활 대축일 미사를 빠진 적이 없는데, 훈련소에 입소한 첫 두 주간 동안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미사에 참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종교 행사가 허락되어 기쁜 마음으로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대 가까이에 앉고 싶은 마음에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사가 시작되자 가톨릭 성가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의 굵직한 반주 소리가 오르간에서 흘러나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훈련이 고됐기 때문이었을까요? 전주를 듣자마자 저는 눈물과 콧물 다 흘리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성체를 모실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 펑펑 울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제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 당신의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미사가 끝나자, 신부님께서 "너 신학생이지? 뭘 그렇게 울어."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훈련병 모르게 초코파이 하나를 더 주신 것은 두 배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기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목이 타들어 가는 갈증을 느끼고 평소 쓰지 않던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킬 때마다 짜증과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 미사에 가면 피곤한 육신을 달래고자 최대한 편하게 앉아 눈을 붙이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대하고 난 후, 어느 날 부활 대축일 미사 중 같은 성가가 흘러나오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던 그 감동과 기쁨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만 취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복음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라는 베드로의 말은 어부였던 그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큰 기쁨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일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순간적인 감정 또는 느낌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들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을 쳤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부활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기쁘다 하여 우리의 삶이 마법처럼 꽃길로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 곧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질 때, 온갖 종류의 돌과 잡초에 덮여 있던 우리 인생길 위에 숨어 있는 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물에 다 담을 수 없는 은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거칠고 험난한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꽃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성화 해설

'라파엘로 카툰' 중 하나입니다. 여기로 카툰(cartoon)은 태피스트리(tapestry), 즉 벽을 장식하는 직물을 위한 밑그림을 말합니다. 밑그림이지만 그는 섬세한 구성과 다채로운 색감으로 오늘 봉독된 복음과 마태오복음(16,18-19)를 적절히 결합하여 그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오른손으로 양 떼를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질문에 합당한 응답은 사랑과 돌봄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말씀의 이삭

고향 양양의 성당엔 '안나'의 시간이 있다

이경자 안나 | 소설가

서울주보에 글을 쓰려니 어린 날의 양양성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곳은 제 유년의 정신의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성당 건물은 양양에선 볼 수 없는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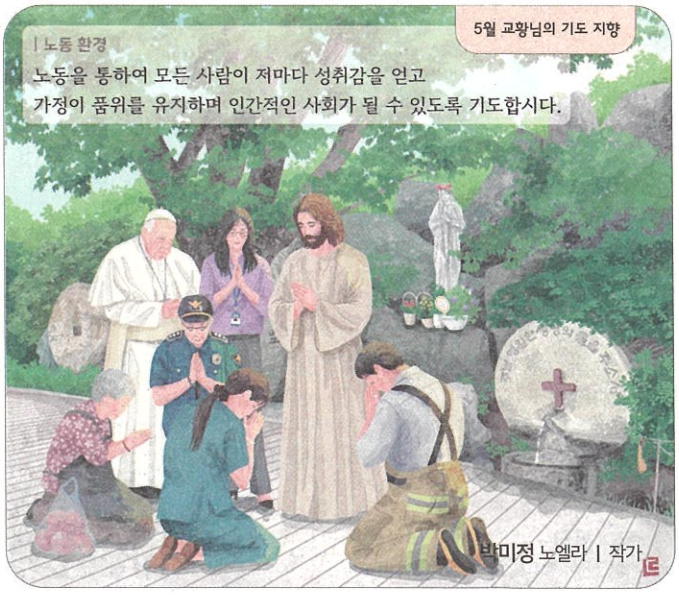
수녀님은 얼굴과 손목 이외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사시사철 그랬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드러내지 않는 차림, 그리고 고개를 조금 숙이고 걷는 자세. 그런 수녀님을 보면서 '나도 수녀님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희망도 가졌습니다. 두 분 수녀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수녀님은 큰 수녀님, 다른 한 분은 작은 수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양양성당을 떠나온 지도 거의 60년이 지났는데, 지금 추억하니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제 일보다 옛날이 더 잘 기억난다는 말이 맞나봅니다.

1958년 성탄 대축일에, 그때의 표현으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주기도문과 요리문답을 외워서 시험을 쳤고 합격했었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를 세례명으로 정했습니다. 안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성당. 매일 새벽 미사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성당의 언덕길로 달려 올라가곤 했습니다. 성당 바닥은 나무판자를 깐 마룻바닥. 겨울이면 그 틈새로 살얼음 같은 바람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미사를 드렸습니다. 낡고, 여기저기 헝겊을 대서 기운 내복에 바지나 치마를 입었던 그맘때의 겨울 옷차림으로.

미사를 드리고 성당을 나오면 무언가 다른 내가 되어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늦잠꾸러기에다 게을렀던 저.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제 이런 태도를 엄마는 아주 의아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얀 종이나 다름없던 제 정신에 드리운 성스러운 교회의 모든 것들, 그 경건한 신앙에 스며들던 어린 저의 세계를. 나쁜 짓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데 나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때렸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누구를 미워했다거나….

사춘기 소녀가 되었을 땐 '수녀님'이 되고 싶어서 한 번은 진지하게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일로 유학을 가야 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의 나. 현실로부터 붕 떠나 다른 세계로 삶을 이전하는, 표현하기 어려운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안나로 살기 시작했던 유년과 사춘기 시절은 제 삶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의손길
: 애네아의 집, 예샘의 집

시설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사랑의 바퀴를 보내주세요

성인 여성 장애인들과 수녀님이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예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지현(가명) 씨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 없이는 어느 곳도 갈 수 없습니다. 직업 재활을 하는 보호 작업장과 예샘의 집은 오갈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주말이 되면 가까운 근교로 나들이를 갈려고 해도, 휠체어를 탄 지현 씨로선 장애인 특장차량이 없으면 꼼짝없이 집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강원도의 최초 중증 장애인 시설인 '애네아의 집'에서 생활하는 민성(가명) 씨도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애네아의 집은 시골에 있기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려면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일반 택시는 탈 수 없고 장애인 콜밴을 이용해야 하는데 운행 차량 수에 비해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많아 1~2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병원 예약시간이 지나버리거나 외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길가의 작은 돌멩이로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기 위해서는 휠체어에 탄 채로 차량에 탈 수 있도록 돕는 리프트 또는 슬로프, 휠체어 전용 안전벨트 등을 설치한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특장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 특장차량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많은 예샘의 집과 애네아의 집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두 단체 모두 15여 년 전에 구입한 장애인 특장차량이 있지만 오랜 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아졌습니다. 문이 고장나 닫히지 않거나,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안전이 우려될 만큼 위험한 차량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막대한 수리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예샘의 집에서는 지난 1월, 소유했던 단 1대의 장애인 특장차량을 폐차 처리하였고 애네아의 집 역시 지난 12월에 보유 중인 차량 중 1대를 폐차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30명의 성인 장애인의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수녀님, 붕붕 가고 싶어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모두 주말 나들이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가까운 근교로 나가 새로운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장애인 특장차량을 타고 봄 나들이를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따스한 햇살 아래 피어난 봄꽃을 보며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5월 3일~30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애네아의 집, 예샘의 집' 시설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특장차량 지원**을 위해 씁니다.

(재)바보의나눔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보여주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특례기부금단체)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 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우측 QR코드 입력**(www.babo.or.kr/hand)
② **전화 신청:** 02)727-2507 (재)바보의나눔

기부금 영수증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닮는 방법 (루카복음)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유년기 사화(루카 1-2장)입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부분인 만큼, 유년기 사화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첫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루카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유년기 사화를 읽으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에서 '자비'(ἔλεος)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오는데, 그중에서 무려 다섯 번이 이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루카 1,54)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루카 1,78)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성모님의 노래에 나오는 것으로 구약에서 하느님이 보여주신 자비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은 즈카르야의 노래에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 역시 하느님의 자비 덕분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루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오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자비 덕분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년기 사화에서 강조된 하느님의 '자비'(ἔλεος)는 복음의 이후 내용들에서 어떻게 묘사될까요? 흥미롭게도 '자비'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에서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지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다른 모든 이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그에게 자비(ἔλεος)를 베푼 사람입니다."(37절)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유년기 사화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하느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던 루카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행동을 설명하면서 '자비'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버림받고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고 행동할 때, 하느님의 자비를 닮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느님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바로 그 마음이 하느님의 자비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자비를 조금이라도 닮아, 우리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5월 14일~28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5월 21일(수)~30일(금) / **전형일:** 6월 14일(토)
모집전공: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 **문의:** 02)705-8668, 9

'청년 기도학교' 모집(전교가르멜수녀회)

기도학교	**대면반** 5월 20일(화), **Zoom반** 5월 22일(목) 19시30분~22시(총10강) / **문의:** 010-7523-0956
청년OFF 기도모임	매월 셋째주(토) 5월 17일 15시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유일옥스퍼드영어캠프(손흥민토트넘·서유럽투어)

모집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1곡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 / www.logoschoir.org
활동: (주일) 16시 및 대축일 미사 등 / 010-2633-2025
오디션: 5월 18일(주일) 17시, 명동대성당
명동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pc버전)

청년공간 모락모락 자원봉사자 모집(CLC)
청년들을 위한 3천원 김치찌개 주말식당
내용: 설거지, 재료 준비, 홀서빙 및 관리
때: (토)~(주일) 10시~15시·16시~21시(5시간) 택일
곳: 시흥1동 / 식사 제공, 봉사시간 인증
문의: 070-4285-2459 한국CLC

2025년 대건챔버콰이어 연주단원 모집
잊혀진 거장 Zelenka 연주시리즈 7
Requiem(ZWV 46) / Missa Paschalis(ZWV 7)
오디션일정 개별 안내 / **문의:** 010-6356-3347
지정곡: Missa Paschalis 'Gloria'(1-57마디)
악보는 대건챔버콰이어 카페 공지사항에서 출력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5월 15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5월 7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바보나눔터와 함께 사랑을 전하세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나눔을 이어가고 싶은 가게, 식당, 병원, 학원 등 중소상공업체라면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김수환 추기경님 현판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문의: 02)727-2506, 7 바보의나눔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따숨 젊은이 기도모임	매월 첫째·셋째주(월) 19시30분~21시30분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까리따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폴자비의수녀회)

유관단체 알림

부모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Zoom) 특강
주제: 청소년 자녀에게 신앙 환경 만들어주기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때: 5월 16일(금) 19시30분~21시30분
5월 12일(월)까지 접수 /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직원모집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공개 모집(신입)
분야: OTT운영, 편집기자, 광고마케팅, 방송경영
5월 11일까지 접수 / **문의:** 02)2270-2114
홈페이지(www.cpbc.co.kr) 참조

공릉동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관리장(계약직 방호원) 1명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교우로 방화관리 및 시설물관리 자격증,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소방·전기·설비 유경험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 이메일 문의
5월 18일(주일)까지 우편·방문(우 01841,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92길 57 공릉동성당) 및 이메일(emo@seoul.catholic.kr) 접수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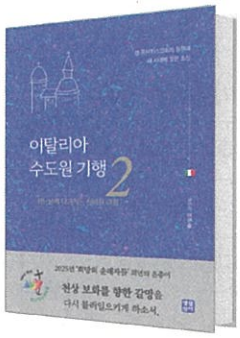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쑥고개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 시설관리·방호·미화 등 전반적인 업무(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근면성실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 **문의:** 02)873-2333
5월 21일(수)까지 방문·우편(우 08785,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79) 및 이메일(uld@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회 천주의 모친 봉쇄 수도원	매주(토) / 성소 상담·피정	수도원	010-6561-2906(www.dominicocorea.modoo.at)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수도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5월 17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성심수녀회	5월 17일(토) 15시~17시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5696-2331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수시	가톨릭회관 516호	010-3068-0325 서울, 010-2969-5119 부산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및 공연 게재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게재신청 – 문화행사

게재된 신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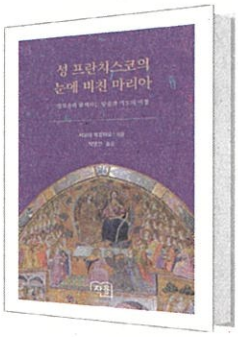
신간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2

하느님께 다가가는 신비한 여정

이관술 지음
생활성서사 | 240쪽 | 1만6천원
문의: 02)945-5987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원은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현미경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이탈리아 수도원의 역사와 현재를 이탈리아 성지 순례 가이드인 작가의 유려한 설명과 생생한 사진으로 전달해 준다. 이 책을 통해 수도 영성과 지혜가 깃든 장소인 수도원을 '보는' 방법을 소개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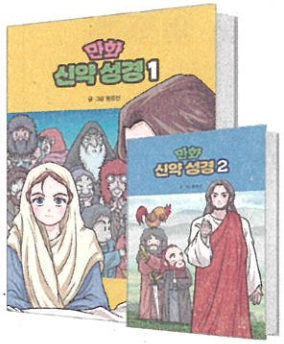
신간

성 프란치스코의 눈에 비친 마리아

성모송과 함께하는 믿음과 기도의 여정

시모네 체코바오 지음
도서출판 작음 | 76쪽 | 9천원
문의: 02)793-2070

성모송은 성경에 기초한 믿음, 교회의 전통, 신심이 훌륭하게 종합되어 있는 기도다. 저자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성모님에 대해 쓴 글이나 성 프란치스코 전기 작가들이 전해 주는 성인의 생생한 목소리에 담긴 흔적들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주 특별한 관점, 곧 성 프란치스코의 시선으로 마리아의 신비와 성모송의 풍요로움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신간

만화 신약 성경 1, 2

황중선 글·그림
바오로딸 | 각 320쪽 | 각 2만원
문의: 02)944-0944

어린이 눈높이를 고려한 명랑하고 귀여운 그림체를 사용하여 4복음서 및 사도행전의 내용을 전하는 책이 출간됐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로 복음서의 이야기를 골고루 실은 이 책은 작가의 만화적 상상력을 통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관심과 호감을 느끼게 하여 성경을 더욱 친근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한다.

뮤지컬

밥처럼 옹기처럼

때: (평일) 20시, (토) 14시·18시(주일 및 국가 지정 공휴일 공연 없음 / 5월 17일(토) 13시· 17시 공연)
입장권: 전석 3만3천원(단체 관람 전화 문의)
티켓 예매: 당일 현장 판매 / 문의: 02)461-1931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5% 할인

종교와 당파를 초월해 전 국민에게 존경받았던 김수환 추기경의 신념과 인간적 고뇌를 섬세하게 조명한 작품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철학을 '밥처럼' 늘 곁에 있는 따뜻한 존재로, '옹기처럼' 정성과 기다림이 필요한 가치로 표현하며, 단순한 전기(傳記) 뮤지컬을 넘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Youth Festival 희희희

사전 등록 큐알(QR)

선착순 리유저블백 증정
행사 당일 즉시 수령 가능
사전 등록과 기념품 수령은
만 15세~39세 청소년, 청년만 가능

때: 5월 10일(토) 정오부터~5월 11일(주일) 오후 6시까지
곳: 혜화동 일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동성중·고, 대학로 일부)
문의: 02)2230-2031 / 참가비 무료

WYD와 함께하는 5월의 축제 유스 페스티벌 '희熙희喜희希'가 5월 10일(토)~11일(주일)까지 혜화동 일대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청년들과 수도자들이 함께 모여 2027서울WYD를 위한 사전 행사로 마련한 환대와 연대의 장이다. 인류보편적 가치인 진리, 사랑, 평화를 주제로, 주교님과 만남, 성체강복, 미사, 성소 상담, 다양한 공연들과 작품 전시회, 거리 체험 부스 등이 열린다. 종교를 초월하여 모두를 초대한다.

제2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천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 좌 신 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희년 맞이 연희동성당 바자회
희년을 맞이하여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은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의 삶에 따뜻한 손길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시 : 5월 18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 성당 마당 및 교육관
바자회 물품 대상 : 먹거리, 깨끗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등
물품 기증 장소 : 주일 및 평일 (사무실)
쿠폰 판매 장소 : 주일 (성당마당) / 평일 (사무실)
후원 단체 : ① 이주여성그룹홈 ② 한사랑공동체
③바오로교실(장애인 보호작업장·주간보호시설)
※5월 18일(주일)은 오전 7시, 9시, 오후 6시미사가 봉헌되며, 9시 미사가 교중미사로 봉헌됩니다.
※5월 18일(주일) 중고등부·반디미사는 17일(토) 15시 주일학교 통합미사로 봉헌됩니다.

◉ 유아세례
일시 : 5월 4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연령회 미사
일시 : 5월 6일(화) 오전 6시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5월 20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10시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바오로 시니어대학 봄 소풍
일시 : 5월 16일(금) 오전 8시 성당출발
장소 : 횡성 풍수원성당

◉ 여성 구반장 야외행사
일시 : 5월 20일(화) 오전 8시 성당출발
장소 : 청평사

◉ 남성울뜨레야
일시 : 5월 2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뜨레야
일시 : 5월 27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오라떼 음악회
일시 : 5월 31일(토) 오후 4시 30분 / 대성전
※5월 31일(토) 오후 3시 초등부미사는 소성전에서 봉헌되고, 오후 6시 특전미사는 없습니다.

◉ 초등부 주일학교 가족 운동회
일시 : 6월 7일(토) 12시 ~ 오후 5시
장소 :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체육관
준비물 : 개인 텀블러, 운동화
※ 점심 미제공, 체육관 내 간식 금지
※ 당일 초등부 미사는 체육관에서 봉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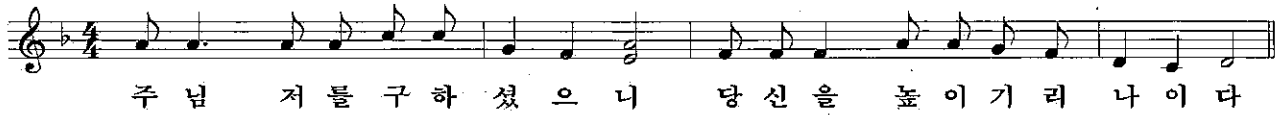
◉ 5월 6일(화)은 06시 미사만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로 사무실 휴무입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4. 2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9	641 (31.9%)	597 (29.7%)	42.9%	41.6%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감사헌금 (4월 21일~27일)
김진웅 ····· 오만원
곽선모 ····· 오천원
익 명 ····· 사십육만원
우성택 ····· 오십만원
최용석 ····· 일십만원
정숙주 ····· 오만원
박옥남 ····· 오만원
신옥분 ····· 삼만원
양경남 ····· 오만원
이계동·구한나 ·····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주님 부활 대축일)
교 무 금 ····· 10,357,000원
주일헌금 ····· 6,211,000원

입당	128	봉헌	210, 217	성체	157, 158, 159	파견	245